

울산단지,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

석유화학 플랜트 안전사고 방지 심포지엄 ... 11월 특별 점검반 투입

울산시 소방본부가 최근 사고가 잦은 석유화학단지에 대해 특별점검 등 재난사고 예방대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.

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석유화학 플랜트 등 산업시설 1805개소에 9개반 20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정전기 방지와 누출 체크, 방폭형 공구 사용 여부, 소화설비 상시작동 기능 여부, 화재보험 가입 및 기타 화재 발생시 연소 확대요인 제거조치 등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.

또 11월18일 소방본부 교육장에서 소방관련 유관기관 및 산업단지 안전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<석유화학단지 안전사고방지 심포지엄>을 열고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소방본부 교육장과 울산과학대 서부캠퍼스 강의실에서 석유화학단지 등 안전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<특별 안전교육>을 실시키로 했다.

한편, 울산지역 산업단지에서는 2004년 들어 9월 말까지 총 49건의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인명피해와 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.

<화학저널 2004/11/08>